

응급처치와 처 무 규 정



박 노 예
〈국립보건연구원 간호교수실〉

학교는 많은 학생이 모인 곳이므로 항상 應急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학교양호교사는 시설의 준비와 조직 학교담임교사에 대한 구급처치 교육과 실제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하겠다.

현재 문교부령 226호에 명시된 양호교사의 임무중에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및 사고자의 구급간호 및 보건지도담당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직접 간호만을 하는 것으로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담임교사 교육중에 대한 養護教師의 규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담임교사이므로 이들의 교육은 중요한 응급처치에 대한 양호교사의 임무라고 보므로 여기에 양호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임무를 논해 보도록 한다.

▶ 응급처치에 있어서 양호교사의 임무

1)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시설의 준비

① 응급실(남, 녀별 방2개와 최소 두개의 간

이 침대)

② 담요여러장, 대야, 비누, 수건, 의자, 탁자

③ 부목, 삼각건, 가계, 고무튜브

④ Emetic Solution (토하게 하기위한 액 (예) 증조수)

⑤ 응급시 사용할 전화번호기재료

• 의사, 구급차, 병원, clinic, 소방서의 전화번호는 눈에 띄이게 부착할 것.

⑥ 만일 가능하면 아동집의 전화번호와 아동의 가정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전화번호부도 비치한다.

2) 응급환자 발생시의 직접간호 실시

응급환자 발생시의 양호교사가 관찰하고 실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흡장애가 있는지?

② 기도에 이물이 있는지 관찰하여 제거한다.

③ 출혈의 유무와 파소를 관찰한다.

④ 충격(Shock)의 조기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한다.

⑤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얼굴의 색이 붉으면

머리를 높이고 창백하면 머리를 낮게 해준다.

⑥ 만일 토하는 기색을 보이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⑦ 가슴에 딱 끼인 옷을 입었으면 호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느슨하게 해준다.

⑧ 환자의 몸을 담요로 잘 덮어서 보온해 주도록 한다. 큰 상처는 몸의 체온을 저하시켜 「죽」을 유발시킴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⑨ 구급차나 의사가 올때까지는 환자는 가능한한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 유의하여야 한다.

⑩ 관찰결과 간단한 사지의 골절인 경우에는 부목을 적용시켜 안전하게 처치하여 병원에 가는 동안에 이차적인 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⑪ 음료수나 음식은 주지 않도록 한다.

⑫ 정서적인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공포감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환자가 상처를 보지 않도록 유의한다.

⑬ 병원까지 가는 동안이라도 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처처치에 무균적 간호를 실시한다.

3) 학급담임에 대한 구급처치 교육 실시

양호교사가 담임교사들에게 구급처치교육을 실시 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루워져야 한다.

• ① 구급처치의 목적에 대하여

이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실시하는 간단한 일시적인 처치로서 더 이상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회복과 불구의 방지 및 생명을 구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둔으로 반드시 구급처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시하여야 됨을 알게한다.

② 사고 발생시의 담임교사가 취하여야 할 태도와 임무에 대해서 지도한다. 즉 갑자기 학생이 쓰러졌을때, 출혈이 심할때 일군이 창백할때 어떤 기초처치를 한 후 양호교사에게 연락하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친다.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Statisticanalysis)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그 학교가 가진 사고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이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알게하여 사고 후의 처치보다 사고예방(Accident prevention)에

도 조직적인 계획을 작성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응급처치 및 사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보관으로 상기의 평가도 가능케 되며 추후간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사고시의 추후간호와 가정간호 지도

⑥ 학교교과과정에 응급처치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직접교육 실시로 학생 자신들이 각자 예방하도록 지도한다.

⑦ 가능하면 등교시 주의를 통하여 사고직전 상태에 있는 학생을 귀가 시키거나 사전에 안정 시키도록 하는 것도 양호교사가 하여야할 중요한 임무이다.

⑧ 응급시에 필요한 구급약과 재료가 들은 응급함(Emergency Kit)을 준비하고 항상 완전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내용품은 별첨과 같다.

<별첨생략>

▶처무규정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으로 인정된 처무규정이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외국의 것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은 없다 처무규정이란 의미 그대로 P.H.N. 이 가정이나 학교 산업장등에서 환자를 맞이했을때 의사가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처치(간호)의 내용을 규명한 처치기준서이다. 아래에 현재 보건의간호분야에서 인용되고 있는 몇가지 처무규정의 예를 들어보기도 한다.

1) 인후통이 있을때

① T.P.R.을 잴다.

② 인후에 홍반이나 흰 것이 끼지 않았나 관찰한다.

③ 끓인 물을 먹도록 지도한다.

④ 우선 환자를 격려시킨다.

⑤ 검사물을 인후에서 채취하고 의사에게 연락한다.

⑥ 식기는 끊이고 물품은 일광욕을 하도록 한다.

⑦ 검사결과에 따라 입원 및 자가치료를 돕는다.

2) 눈에 염증이 있을때

- ① 끓인 물로 세척을 하고 솜으로 씻는다.
- ② 설파연고(Sulfa Ointment)로 발라준다.
- ③ 안대를 하도록 해서 눈을 안정시킨다.
- ④ 눈에 손을 대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⑤ 만약 눈에서 고름이 나오면 즉시 의사에게 가도록 한다.

3) 경한 설사

- ① 미음이나 끓인 우유(지방이 적은 것)보리차 등을 준다.
- ② 절대로 날거나 완전히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 ③ 배설물의 처리는 따로 받아서 묻거나 변소에 버리기전 소독수를 타서 2~3시간 놓았다가 버린다.
- ④ 음식 조리하는 사람의 손의 청결에 대해 지도한다.
- ⑤ 보건소에 가도록 지도한다.

4) 심한 설사

- ① 입으로 먹는 음식을 설사가 그칠 때까지 계속 주지 않는다.
- ② 보리차에 소금이나 설탕을 타서 2~3시간 간격으로 준다.
- ③ 대변이 정상으로 돌아온지 24시간후에 정상 음식을 줄 수 있다.
- ④ 수분 배출이 심해서 환자가 허탈상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원하도록 한다. 어린아이는 계속 관찰하여 경과기록을 남겨야 한다.

(ㄱ) 4개월 이하의 영아인 경우

Sulfa suxiodine 0.5gm을 24시간 동안 매 4시간마다 먹이고 그후 2~3일간을 매일 3회 정도 복용시킨다.

(ㄴ) 1년 이상의 유아들에게는 Sulfa suxiodine 1.0gm을 24시간동안은 매 4시간마다 먹이고 그후 4일간을 매일 3회씩 먹인다.

(ㄷ) 성인인 경우에는 Sulfa suxiodine을 24시간 동안 먹이고 그후 4일간을 매일 3회씩 먹인다.

5) 옴(scabies) (가려움병)

- ① 더운 물에 몸을 씻고 말린 후 소독된 것은 솜으로 딱지를 떼어내고
- ② Benzylbenxonate를 상처와 전신에 바른다.
- ③ 약을 바른 후 삶아 빨은 옷을 입게하고 상처에는 소독된 거스를 대고 3일동안 지낸 후 다시 치료한다.
- ④ 더러운 손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6) 동물에게 물렸을 때

- ① 비누와 물로 상처를 씻어 타액을 제거하고 치료를 한다.
- ② 개에게 물렸으면 그 개가 정상인지 알아보고 예방접종을 즉시 받도록 한다.
- ③ 기타 뱀에게 물렸을 때는 즉시 물린 부위보다 윗쪽을 묶어 독이 심장까지 가지 않도록 하고 환부를 씻어낸과 동시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 ④ 의사의 손이 털 때에는 소독된 면도날로 물린 부위를 절개하고 펌프나 입으로 빨아내고 식염수로 30분동안 닦아낸다.
- ⑤ 가능하면 상처에 어름 찜질을 하여 독의 흡수를 느리게한다.
- ⑥ 묶인 부분은 20분 후에 1분동안 늦추어 살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즉시 병원으로 간다.

7) 일사병

이 병은 고열, 두통, 빈맥을 동반하며 구기증이 난다. 우선 환자를 안정시키고 온수욕(수건, 목욕)을 해주고 우유나 미음에 염분을 섞어서 먹이도록 하며 증상이 심하여지면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한다. (우유나 미음 1000cc에 소금은 차수저로 반 정도 섞어서 준다.)

